

지난 1998년에 설립된 성림산업개발은 설립년수에 비해 에스코 사업실적과 노하우가 풍부한 기업이다.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등 각종 플랜트설비의 설치공사와 유지관리 업무에 20여 년간 종사해온 기술인력을 주축으로 ESCO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선 성림산업개발을 소개한다. 취재 편집실

One-Stop Service로 에스코의 중심에 서다

성림산업개발(주)





앞선 기술력으로 ESCO의 안정화를 이룬다

성림산업개발이 제공하고 있는 ESCO 사업은 인버터 적용사업, 고효율 조명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폐열회수 이용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에너지절감측면에서 보면 인버터만한 아이템이 별로 없는데, 인버터가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후 안정화된 기술이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산업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동욱 대표이사는 인버터 사업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인버터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ESCO 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ESCO사업의 또 다른 분야는 바로 고효율 조명시설 개선사업 (CDM, LED)입니다. 에너지절감사업으로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조명인데, 과거의 조명분야 ESCO사업을 보면 어떤 유행을 따라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가로등 분야를 예로 들면 초창기에는 일반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연색성이 좋다 하여 한때 나트륨 등으로 가로등이 교체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측면이 강조되



면서 조도와 광속이 보장되고 전력소비가 적은 전구식 삼파장램프가 주류를 이루었고 또한 요즘은 CDM 램프가 유행을 타고 있죠. 아마 미래에는 기술적 보완과 가격문제만 해결된다면 LED 또는 무전극 등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연 전무이사는 고효율 조명시설 개선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 시장의 미래가 밝음을 강조했다.

폐열회수 이용사업은 에너지사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환경 측면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부분으로, 성립산업개발은 이 부분에도 역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시행한 그린스코 소각폐열회수 열배관 공사는 성립산업개발의 대표적인 에스코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소각장에서 소각열을 열교환기를 거쳐 중온수로 변환하여 송도신도시에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마침 공사기간이 동절기 굴착금지기간이라 공사기간이 촉박한데다 바닷바람을 견디어가며 하천횡단 열배관을 하느라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일을 무사히 마치고 금년 4월 1일부터 열공급이 개시돼, 성립산업개발은 에스코사업 분야에서 한층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를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행복으로

“에스코 사업 분야에서 우리만의 특화된 강점이라면 에너지진단과 ESCO consulting을 접목한 marketing source 개발이라 말할 수 있죠.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큰 만큼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분야에 보다 전문적인 노하우와 인력을 보장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에스코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성립산업개발이지만 여전히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프로페셔널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함이 엿보인다.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에너지진단 지정기관인 성립산업개발은 현재 열에너지 진단(열발생설비, 열사용설비, 열수송설비 등)과 전기에너지 진단(수배전 설비, 동력설비, 전열 및 조명설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파악하며,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당 기업들의 반응도 무척 긍정적이다.

ESCO 효과가 다각도에서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우선 경영 부문에서는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





김동욱 대표이사
에너지 진단사업 및 ESCO consulting을 소프트웨어라 한다면 설치공사같은 것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연 전무이사
절감목표 선정 시 현실성 및 정확성, 구체성, 경제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동시에 설치 완료 후 사업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지 소비율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ESCO를 계기로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마인드가 고취되는 결과가 드러났다.

설비 및 기술 부문에서는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 손실 방지 및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그리고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 지원 설비의 안정화와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등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은 성립산업개발이 에스코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는 에스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고객 만족에 가장 중점을 둡니다. 또한 절감목표 선정 시 현실성 및 정확성, 구체성, 경제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동시에 설치 완료 후 사업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우리 고객들이 계속 저희를 신뢰하면서 함께 에스코 사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김중연 전무 이사는 성립산업개발의 목표는 역시 고객만족임을 강조한다. 고객이 없다면 오늘의 성립산업개발도 없었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진단사업 및 ESCO Consulting을 소프트웨어라 한다면 설치공사같은 것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One-Stop Service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고객의 편리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죠.”

김동욱 대표이사는 성립산업개발처럼 에스코에 관한한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성립산업개발은 소각폐열을 이용한 열배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CDM LAMP 및 LED LAMP 무전극 LAMP 등 차세대 조명사업, 인버터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이 사업들이니만큼 끊임없는 연구와 인력양성을 통해 에스코의 밝은 미래를 열겠다는 성립산업개발의 앞날이 기대된다.

에너지 진단 주요 진행 절차

